

## 제 4 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최 영 희

(대한간호협회장)

UN은 일찍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제 1 차 세계여성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하고 270여개에 이르는 행동강령을 결정하였고 이 회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은 “UN 여성 10년”을 선포하고 그 중간이 되는 1980년에 행동강령의 이행여부와 진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 2 차 여성대회를 코펜하겐에서 개최하였으며, 그 후 1985년에는 나이로비에서 제 3 차 회의를 열고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앞으로 10년간 그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제 4 차 세계여성대회는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작업을 통해 여성발전전략을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제 4 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행동강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여성의 실제적 권한 확보와 남녀 평등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세계여성 운동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경제분야에서도 단순한 고용 촉진문제를 벗어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수립 및 생산과정에서의 남녀 평등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족관계에서도 여성의 상속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과 실천방안이 강구되었다.

또한 여성문제가 더이상 주변적,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 주제임을 확인할 것도 큰 성과이다. 즉 각종 국제회의에서처럼 여성문제가 환경·인구·아동·인권·사회개발 등의 주제속에 등장하는 부분적인 의제가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제반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므로써 앞으로는 여성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주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와 기틀을 마련하였다.

성을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의미가 강한 섹스(SEX)라는 용어 대신 대등한 남녀 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젠더(GENDER)로 합의되었다. 평등의 개념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의 인정을 전제로 한 형평(EQUITY)이라는 단어 대신 평등(EQUALITY)이라는 단어로 남녀 평등을 표현하였다.

북경세계여성대회는 금세기 최대규모의 여성대회로 185개국 여성대표 4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대표단 및 민간여성단체대표 약 700여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대표단은 불과 50여명이 참석한 제 3 차 회의에 비해 우리 여성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여성운동이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새 정부가 국제화, 세계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국제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진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북경세계여성대회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 사이의 정부간 회의(GO)와 8월 30일부터 9월 8일 까지의 비정부기구 회의(NGO)로 나누어 열리게 되는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간 회의에 참여 하는 정부대표단 1만여명에 비해 3배가 넘는 3만 6천여명의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가해 새로이 채택된 행동강령에 NGO의 영향력을 높였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를 비롯 정부 대표단 50여명이 정부간 회의에 참가하였으나, NGO회의에는 우리나라 각 민간여성단체 대표 및 각계 대표들을 포함한 600여명이 참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8일 까지 10일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GO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NGO 포럼은 2000년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국제간의 연대활동, 그리고 유엔 정부간 회의의 행동강령 채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민간 기구측의 전략을 대변하는데 목적을 두고 열렸다.

한국여성NGO위원회도 북경세계여성대회에 대비하여 1994년 3월부터 96개 민간단체가 모여 한국여성의 주요 이슈와 북경에서 논의될 주요 관심 분야를 연결하여 12개 분과위원회-경제, 정책, 평화, 건강, 종교, 교육, 환경, 인권, 과학, 기술 매체, 인종·청년, 문화와 예술로 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는 3~4차례의 워크샵과 수차례에 걸친 연구모임을 통해 각 분야별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2차에 걸친 전체 워크샵을 실행위원과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최종 '한국여성NGO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여성의 현실과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 이행 상황의 평가, 한국여성의 발전 전략 제시의 세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영문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는 북경 NGO포럼에서 배포되었다. 이러한 국제회의에 대비하는 '내용적 준비외에도 NGO포럼의 축제적 성격에 맞추어, 한국여성NGO위원회는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하여 우리나라 여성계의 조직력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한국여성NGO위원회 활동은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성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연대감을 강화하였고, 한국 정부는 회의에 참

가하는 민간단체활동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협력체계가 이뤄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정부대표단에 처음으로 민간대표를 포함시킨 것도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NGO회의는 정부간 회의의 이해관계와 한계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정부 기구간의 회의로서 누구나 등록절차를 마치면 참석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사전에 관심 분야를 정하여 포럼에 신청하면 어떤 활동이든지 장소와 시간을 배당받아 모임이 이뤄지는 행사이다. 이에 따라 NGO회의는 자유롭고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세계여성의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시위와 같은 과격한 의사 표현의 방법까지도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중국정부는 NGO회의준비에 있어서 자국의 인권상황 및 정치문제 등이 NGO회의를 통해 널리 주목받게 될 것을 우려해, 북경 시내 근로자 경기장으로 예정되었던 회의장을 회의 개최 4개월전 갑자기 북경에서 승용차로 1시간 반 떨어진 화이로 우라는 소도시로 변경하였다. 갑자기 변경된 회의 장소로 인해 모든 시설과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NGO회의는 시작되었고 비까지 몹시 내려 NGO회의 참가자들을 당혹케하였으나 하루 500여개 열리는 포럼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은 여성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인상적 모습이였다.

우리나라 NGO 대표들도 어려운 환경가운데 5천여개에 이르는 각종 워크샵과 캠페인에 활발히 참여하고 수십개의 워크샵과 캠페인을 개최하여 여성의 정치 세력화, 경제 세력화, 인권과 여성폭력, 여성과 개발, 평화 등 다섯가지 중점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희롱 문제, 환경문제 등을 제기해 여론화시켰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NGO 위원회를 결성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도문 국가였으며 무엇보다 국내 여성계의 조직력과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즉 NGO보고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배포한 유일한 나라로써 세계여성대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성을 과시하였으며, 국내외 홍보를 위해

대변인을 중심으로한 공보팀을 운영해 회의기간중 날마다 영문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주선하여 활발하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하므로써 한국 여성NGO의 활동을 세계에 알리고 GO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9월 1일 오전, 비가 몹시 내려 전반적인 행사가 맥이 빠진 분위기에서 우리 대표단은 핑과리와 정을 치며 행진하는 풍물놀이를 벌여 전회의장의 활기를 소생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는 독일, 홍콩 등 외국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회의 본부가 발행하는 신문 1면 톱 기사를 한국여성 NGO 활동을 기사로 장식케 하였다.

9월 4일 밤 아시아 태평양 지역문화행사와 5일 한국의 날 행사도 짜임새 있는 준비와 역동적 내용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욱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 조직적이고 성숙해 질 것이며 이번 세계여성대회에서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은 여성의 평등과 발전,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 바이다.

제 4 차 북경세계여성대회는 주제인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베이징 선언을 발표하고 9월 15일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세력화"와 "여성문제의 주류화 전략"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여성문제의 주류화란 여성이 더 이상 남성 또는 사회의 보호나 지원 특혜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세계평화와 발전의 동반자란 적극적인 선언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도 조직화를 통해 정책결정 즉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부간회의에 비정부기구회의가 보다 더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동안 한국 등 일부나라에서만 논의되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여러나라가 여성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된 것도 이같은 변화의 결과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EQUIPO(모임이라는 뜻의 라틴어) 라는 공식로비 단체를 구성하여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할 행동강령이 NGO의 논의와 결의를 최대한 반영한 것도 조직화의 좋은 예이다.

비정부기구 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이슈중 대표적인 것은 "여자어린이의 인권"이다. 이번 북경 GO회의에서도 '남녀어린이가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자어린이에 대한 가족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행동강령에 못 박을 만큼 여아의 인권상황은 심각하고 각국이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 이슈의 하나였다.

비정부기구회의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5천명에 이르는 10대 소녀들이 참가해 '여자어린이 탠트'를 중심으로 맹활약을 벌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녀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어릴때 부터 어린이들을 성차별 없이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자어린이 인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여성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부기구회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 '이주여성노동자문제'나 '여성장애인 문제' 등도 우리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 여성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차별임금 등의 문제는 국내 여성 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결혼 문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찾는 시도도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 여성계가 중요한 이슈로 잡고 활동을 펼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성희롱 문제, 가사노동 가치산정문제 등은 이번 회의의 결과로 지원을 얻게 된 주요 분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중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포함돼 비정부기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정부간 회의 행동강령에도 전쟁분쟁상황에서의 강간을 집단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의 하나로 규정해 그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정부에 압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정부기구회의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여성인권을 해치는 성폭력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못박은 것도 성희롱을 방지하고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해 국가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동강령이 채택된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주부의 지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정부와 사법부 등은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여성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법을 시행한다'고 규정한 대목은 각 분야에서 여성할당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시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및 권력확장에 큰 발전이 기대된다.

보건분야에서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임신 출산 건강을 포함한 자신의 성을 강요나 차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항목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질 경우 의료혜택

등을 제한하는 법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녀가 동반자 관계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에도 여성의 문제가 여성의 힘에 의하여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연구와 사업추진, 로비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은 이 행동강령이 제시한 새로운 과제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까지의 쌓아 온 여성 여러분의 역량으로 내년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아·태여성회의"도 잘 되어갈 줄 기대한다.

올해는 한국여성 비정부기구들의 조화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여성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꾸준한 준비작업을 하여 북경회의에서 증명해 준 국가사회에서의 한국여성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잘 보여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러한 힘을 도출하기까지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연숙, 이미경 그리고 신낙균 공동대표와 N.G.O 실무진, N.G.O 실행위원, 그리고 문화행사에 적극 출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